

‘삼보의 의미’ 걸음 걸음에 담아내다

(三寶)

10월1일부터 18일 동안 천리순례단은 송광사, 사성암, 화엄사, 천은사, 실상사, 해인사, 흥제사, 표충사, 통도사 등 9개 사찰을 참배했다. 승보종찰 송광사를 떠나 길을 나설 때 30도 가까운 뜨거운 햇살도 경험했지만 표충사를 지나 재약산 사자평을 오를 땐 영하의 기온을 겪기도 했다. 3일 동안 비를 맞으며 걷는 여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10월18일 불보사찰 통도사 금강계단을 맨발로 돌며 참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순례의 여정을 회향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ayo.com



▲10월17일 표충사를 새벽 5시 출발한 순례단이 재약산 사자평을 지나 점심 공양장소인 배내고개 휴게소를 향해 가고 있다. 순례단 뒤쪽으로 영남 알프스가 펼쳐져 있다.



◀10월17일 새벽 기온이 급속이 떨어졌다. 사자평에 오른 회주 자승스님 눈썹에 서리같은 이슬이 맺혀 있다.



18일 간 순례단 총도감 ▶ 호산스님(사진 오른쪽)과 지객 원명스님이 중책을 맡아 순례단을 이끌었다. 새벽예불 모습.



- ① 10월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 순례단이 다다랐다. 소나무 숲길을 지나 통도사 일주문을 통과한 순례단은 금강계단을 맨발로 참배했다. 사진은 대웅전 마당에서 열린 회향식 모습.
- ② 하루 순례 거리의 반 정도는 해가 뜨기전에 걷는다. 앞 사람 발에 비추는 랜턴 불빛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간다.
- ③ 10월18일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는 회주 자승스님의 맨발. 긴 거리를 걸어난 스님의 가사 또한 닳아 있다.